

Robert Vannoy , 신명기, 강의 5A

© 2011, Robert Vannoy 박사 , Perry Phillips 박사 및 Ted Hildebrandt

신명기 낱자에 대한 다양한 필자들과 입장 가

. 테넌트 & 듀트. 미래의 왕을 위한 17가지 조항 - Deut. 기원전 500년

신명기 17장 14절에 보면,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며 이르기를 우리도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우자 하자 하고” 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으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왕을 너희 위에 세워라. 그는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올 것이요” … 더욱이 왕은 말을 많이 두어서는 안 됩니다… 16절 . 17절: “아내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됩니다.” 18절: “그가 자기를 위하여 율법의 등사본을 만들 것이요.” 즉, 법을 배우고 그에 따라 생활하십시오.

H. 테넌트(H. Tennant)는 “ 17장은 왕이 왕좌에 있었을 때에는 기록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선될 가능성이 있고 특정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왕이 이미 그곳에 있었다면 누군가는 17장 같은 것을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왕이 없지만 왕이 선출되거나 선출될 확률이 있는 시기를 얻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흥미롭게도 왕의 자격 중 하나는 그가 이스라엘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5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왕을 너희 위에 세우라. 그는 틀림없이 여러분의 형제들 가운데 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네 위에 세우지 말라.” 글쎄요, 이스라엘 태생이 아니었을 수도 있는 왕을 이스라엘 백성 위에 세우려는 생각이 있을 때 그러한 상황이 언제 존재하겠습니까? 이를 설명하는 시기나 상황을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다음과 같은 질문이 즉시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직후에 혼합 무리가 있었던 군주 이전 시대로 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여기 1920년의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신명기를 모세에게로 돌아가는 대신 다른 방향으로 밀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는 책을 쓰고 이를 뒷받침하는 이론을 개발합니다.

비. 홀서 - Deut. 캘리포니아 작성. 기원전 500년

또 다른 이름인 Holscher는 1922년에 Tennant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신명기가 요시아의 율법서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요시아 시대보다 적어도 100년이 지난 책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당신은 500년대로 내려갔습니다. 그는 “포로 이전 시대에 단일한 성소를 요구하는 것은 비실용적인 이상주의의 일부였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그는 신명기가 중앙 성소를 요구하며 그렇게 하는 것은 포로 이전 시대에는 “비현실적인 이상주의” 였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그 나라의 전체 인구가 축제 기간 동안 일주일 내내 예루살렘으로 여행할 수 있었습니까? 농장 동물들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예배의 중앙 집중화를 요구하고 신명기 12장을 포로 이전 시대에 두는 것은 매우 비현실적이었습니다. 그는 “신명기는 개혁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포로 생활 이후 비현실적인 몽상가들의 희망적인 생각” 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이 책이 아마도 기원전 500년경에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에 의해 기록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이것은 벨하우젠과는 상당히 다른 배경입니다. 왜냐하면 흥미롭게도 벨하우젠은 신명기에는 제사장적 배경이 아닌 예언적 배경이 있다고 느꼈고, 신명기에서 발견하는 모티프와 사상은 제사장적 영향이 아닌 예언적 영향의 결과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 그래서 Holscher는 그것이 이전 시대에는 비실용적이었고 성직자의 영향에 의해 개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포로 이후 시대에 그것을 배치했습니다.

2. 고전적 벨하우젠 입장에 대한 도전: 기원전 621년 이전, 군주제 시작 이후의 옹호자들 알겠습니다. 두 번째 : 고전적인 벨하우젠 입장에 대한 도전: “기원전 621년 이전, 시작보다 이후의 옹호자들 군주제의.” 즉, 621년 이전이지만 모세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H. Ewald는 1876년에 사망했습니다. 그는 신명기가 므낫세 통치 기간에 기록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므낫세 뒤에는 아몬이 있었고,

아몬 뒤에는 요시야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크게 뒤로 물러나지 않고
 므낫세 통치 시대 이전의 세 왕으로 돌아갑니다. G. 베스트팔은 1910년에
 그의 『*율법과 선지자들*』에서 신명기가 히스기야가 개괄한 것과 같은
 개혁에 영감을 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므낫세 이전에는 히스기야가
 왕이었으므로 당신은 다른 왕을 뒤로 물러나게 하신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개혁 뒤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신명기는 히스기야 시대에도
 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외스트라이허

그럼 Th. 1923년 외스트라이허의 *Das Deuteronomische Grundgesetz*는
 히스기야 이전, 아마도 10세기나 900년대 어느 시점에 연대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분단왕국 시대의 시작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Oestreicher
 는 요시야의 개혁이나 신명기가 예배의 중앙 집중화를 요구한다는 생각을
 거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시야의 종교개혁과 신명기 모두 예배의
 중앙집권화를 요구한 벨하우젠의 기본 논제였습니다. Oestreicher는 그
 아이디어를 거부합니다. Oestreicher가 사용한 두 가지 용어는 신명기에 관한
 토론에서 꽤 잘 알려졌습니다. 그의 견해로는 요시야의 개혁은 독일어로 컬트-
 리인하이트 (*cult-reinheit*)로 확정됐다. 컬트는 "컬트"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와 같습니다. *Reinheit*은 순수함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의적 순수성,

즉 예배의 순수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신명기는 *예배의 계승* 이 아니라 *예배의 계승* 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 이제 *einheit* 은 예배의 중앙집권화라는 관점에서 보면 일치일 뿐이지 제의적 일치는 아닙니다. 즉, 요시야의 개혁은 중앙성소에서의 예배의 연합보다는 예배의 순수성에 더 관심을 두었다는 것이 그의 견해이다. 그는 요시야가 율법서가 발견되기 몇 년 전에 스스로 개혁을 시작했음을 지적합니다. 그러므로 그 율법서가 신명기라고 결론을 내리더라도 , 그 율법서의 발견은 개혁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개혁에 새로운 자극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율법서를 신명기와 동일시하는 벨하우젠의 견해에 도전했고, 그 책이 예배의 중앙 집중화를 요구하고 신명기 자체가 훨씬 더 이른 시대로부터 왔으며 신명기는 어떤 결정적인 의미에서도 요구하지 않는다고 가르쳤다는 벨하우젠의 견해에 도전했습니다. 예배의 집중화. 그는 예배의 통일성이나 중앙집중화가 아닌 순수성을 강조했습니다.

나는 Oestricher가 요시야의 개혁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 의미를 찾아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신명기도 어느 정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마도 언약법전과 신명기법전, 그리고 제사장 법전의 차이에 대해 그것이 모세였다는 것 외에 다른 설명이 필요하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Welch D. Adam C. Welch는 1924년에 한 권, 1932년에 한 권 등 두 권의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1924년에 나온 책은 *The Code of Deuteronomy: A New Theory of its Origin*이고 1932년 책의 제목은 *Deuteronomy: the Framework to the Code* 였습니다 . 그는 예배의 중앙집중화에 관해 Oestreicher 와 거의 독립적으로 동일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 즉 그는 신명기의 기본주제가 예배의 집중화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같은 결론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추론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중앙 집중화에 대한 중요한 구절 중 하나인 신명기 12:1-7이 나중에 삽입된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해보기 위해 결국 신명기 12장 1-7절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예배의 중앙집중화를 요구하는가, 아니면 예배의 중앙집권화를 요구하지 않는가. 여기에는 벨하우젠 이론이 달려 있습니다. 웰치(Welch)는 신명기 전체가 그것을 강조하지 않지만 아마도 12:1-7은 강조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중에 삽입된 것이었고 그는 이 책의 강조점은 예배 장소의 숫자가 아니라 예배 장소의 성격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초점은 제의적 통합이 아니라 제의적 순수성에 있었습니다. 그는 그 책에 사무엘 시대 이후로 북이스라엘에서 나온 자료가 들어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일찍 돌아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사무엘 시대는 군주 이전 시대입니다. 그것은 그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자료를 포함하고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형태는 기원전 8세기 이전의 것이 아닙니다. 즉, 그는 그것을 요시야보다 한 세기 더 전으로

밀어냈지만 그 이상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의 형태로 발전한 발전의 시기였습니다.

Von Rad 마지막으로 Gerhard von Rad는 신명기 뿐만 아니라 구약학의 다른 많은 분야 에서도 막대한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 폰 라드는 가장 영향력 있는 현대 구약성서 학자 중 한 명이다. 그는 불과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더 이상 살지 않지만 , 그의 작품 중 많은 부분이 여전히 읽혀지고 있으며 현재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나는 신명기를 직접적으로 다룬 그의 작품 세 편을 언급하겠습니다. 첫째, 1938년에 쓰여진 “육학술의 문제” 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그것은 영어로 번역된 “*육학술의 문제와 다른 수필*” 이라는 책에서 볼 수 있습니다 . 그의 두 번째 책인 신명기 연구 (*Studies in Deuteronomy*)는 현재 1963년에 영어 번역으로 출판되어 문고판으로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은 원래 1948년에 출판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Deuteronomy: a Commentary*는 1954년에 독일어로 출판되었고 1966년에 영어 번역으로 출판되었습니다. 그가 하려고 했던 것은, 이것은 문학 비평 방법론의 전통에서 벗어나는 일종의 독특한 움직임으로, 형식 비평 방법에서 이 책에 접근한 것이었고, 신명기에 관한 한 그의 관심을 끌었던 것은 신명기의 구조, 즉 신명기의 전체 구조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책. 1938년에 쓴 그의 기사 “육교의 문제” 26, 27페이지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매우

흥미롭습니다). 책의 성격에 대한 모든 논란에도 불구하고 학자들은 거의 다루지 않은 문제입니다. 가르침과 율법 등이 놀랍도록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는 신명기의 형태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말해야 합니까? 비록 우리가 현재 형태의 신명기가 신학자의 책상에서 바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장르에 속하는지 묻는 것을 막지는 못할 것입니다. [장르는 문학적 형식, 즉 책의 전체 구조입니다]. 이것은 단지 질문을 더 멀리 밀어놓고 우리로 하여금 신명기 신학자가 사용한 자료의 형태의 역사와 발전을 조사하게 만듭니다. 이 사람들이 *즉흥적으로 주목할만한 문학적 형식*을 창조했다는 가정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

von Rad의 초점은 책의 전체 구조입니다. 그는 어떤 장르가 관련되어 있는지, 그 유래는 무엇인지, 그것이 신앙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관점에서 살펴본다. 그거 어디서 났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기자가 새로운 내용을 쏟아 붓기 위해 다양한 형식을 가지고 등장하고 그러한 특별한 신학적 강조점을 표현하는 다양한 요소의 가장 유용한 조합을 활용했다고 상상하는 사람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형식비평의 관점에서 볼 때 신명기에 대한 그러한 주장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신명기가 형태상 유기적 전체라는 사실(이것은 현 시점의 비판적 입장에서 볼 때 신명기 연구 에서 완전히 새로운 사실임)을 인식함으로써 그것은 배제됩니다 .” 즉, von Rad는 책의 통일성, 즉 유기적인 전체에 대해 말하기 시작합니다

. 우리는 문학적 기준에 따라 다양한 지층과 부가물을 구별할 수 있지만(즉, 그는 문학 비평을 사용하여 물질의 수준, 이전 물질, 후기 물질을 결정함) 형식의 문제에서는 다양한 구성 요소가 분할할 수 없는 통일성을 형성합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신명기의 형태의 기원과 목적에 관한 의문이 불가피하게 제기됩니다.” 그런 다음 그는 “형태는 우리에게 통일성을 줍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주장은 1938년에 작성되었습니다.

Von Rad는 신명기가 네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나는 그의 네 부분을 여러분에게 제시하겠습니다. 1. 시내산 사건에 대한 역사적 설명과 그 사건과 관련된 편집적 자료. 사건과 연계된 파라네틱 자료는 권면이나 설교, 가르침의 성격을 지닌 연계자료이다. 신명기 1-11장입니다. 그것은 시내산에서 일어난 사건들에 대한 역사적 요약이자 그 사건들과 관련된 편집적인 자료이다. 2. 율법 낭독, 신명기 12-26장. 여기에서 모든 법적 자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3. 언약의 인봉. 신명기 26:16-19. 그다음 4장, 축복과 저주, 27장 이하입니다. 따라서 책에 관한 한 네 개의 별도 섹션이 있습니다. 그는 책이 유기적인 전체를 형성한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그가 인식하는 것은 그 구조와 형태이다. 인생의 어떤 상황이 그러한 형태를 만들어냈을 수 있습니까? 그거 어디서 났어? 책에 나오는 이 놀라운 형태에 대한 설명은 무엇입니까? 그는 그것이 신명기의 일부 종파가 *임시적으로* 창설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보다 더 뭔가가 있어야합니다.

그래서 그는 뒤로 물러서서 이 양식에 대한 설명을 찾고 싶어합니다. 1938년의 “육학술의 문제” 보다 훨씬 늦은 그의 주석과 1950년대 초반의 *신명기 연구*, 1964년의 *신명기 주석 4페이지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는 놀라운 배열을 보여줍니다. 주로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메시지, 즉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설명하는 [파라네틱 기능]입니다. 이 율법 부분은 신명기 26:16-19에서 언약의 공식화로 끝납니다. 그 다음에는 축복과 저주가 선포됩니다. [4중 구조입니다.] 이 배열은 문학적인 고려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 우리는 신명기가 여기서 전통적인 제의 패턴을 따르고 있다고 가정해야 합니다. 아마도 제의 축제의 전례로 되돌아간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것이 그의 기본 생각입니다. 이 형식에 대한 설명은 이스라엘에 존재했던 제사 전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제의식의 형식이 여기 신명기에서 채택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12페이지 하단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가 무수히 많고 매우 다양한 전통 자료의 모자이크로 우리에게 제시된다는 진술로 우리는 만족할 것입니다 . 다양한 시간의 다양한 종류의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것이 책이 그 형태의 절제된 통일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von Rad는 이 책을 오랜 개발 과정의 최종 산물이라고 봅니다. 그는 그 구조를 이 자료의 기원이 군주 이전 시대에 세겜에서 정기적으로

개최된 언약 갱신 축제에서 찾을 수 있다는 증거로 간주합니다. 지금 세겜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성읍으로 언약갱신식이 거행되었던 성읍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통치 아래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 24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겜으로 가서 여호와께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언약의 요소들이 그 장소나 성소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부릅니다. 이 요소들은 거기에 보존되었고 이스라엘이 그 땅을 점령한 모든 시대로부터 전해졌고 확대되었으며 궁극적으로 신명기에서 우리를 위해 보존된 세겜 성소의 자료를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식과 원래 의식의 중간 연결고리는 무엇입니까? 이 오래된 제의 자료를 누가 보존하고 정교하게 만들었습니까? 그는 “ 현재 형태의 신명기는 군주 시대에 율법을 가르쳤던 제사장들인 레위 사람들이 쓴 것” 이라고 말합니다 . 이제 그의 레위 이론은 세겜 성소의 이 제의 자료 및 전례와 실제로 연결되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가르쳐졌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신명기를 기록한 책임은 레위인에게 있었습니다. 그의 논평에서 연대 측정에 관한 그의 결론은 26 페이지에 있습니다. 세겜에서의 예배의 기원과 전례, 그리고 길고 복잡한 과정을 통한 레위인의 전파와 설교에 대해 논의한 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 그러면 우리는 북부 이스라엘에 있는 성소 중 하나인 세겜이나 벳엘이 621년 이전 수세기 동안 신명기가 나온 곳이라고 가정할 것입니다. 더 거슬러

올라갈 충분한 이유가 없습니다.” 즉, “621년 이전 세기”라고 말함으로써 그는 책의 형식과 시대에 관한 한 그라프-벨하우젠의 입장에서 약간 뒤로 물러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오랜 개발 기간에 걸쳐 그 최종 형태의 이전을 추적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이 점령되었던 옛날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모세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던 초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는 그것을 세겔 성소와 연결시킨다.

나중에 다른 문제와 관련하여 von Rad에 대해 다시 이야기하고 싶기 때문에 von Rad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 나는 그가 이 책을 하나의 통일체로 보는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전체의 구조를 1938년과 1964년에 다시 보았지만, 그 구조를 현재의 형태로 만드는 데 책임이 있는 레위인과 함께 정한 날짜와 관련하여 그 형태로부터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그는 책의 초기 연대에 있어서 조약 형식의 기원을 중요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3. 군주 이전 시대이지만 모자이크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 세 번째로, 분명히 von Rad는 621년 이전이지만 군주 이후 시대의 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범주는 군주정 이전이지만 모자이크가 아닌 범주입니다. 이 입장을 옹호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 첫 번째 Edward Robertson의 1950년 저서 *The Old Testament Problem* . 그는 히브리인들이 십계명과 아마도

언약서로 구성된 율법의 핵심을 개발하면서 팔레스타인에 들어왔다고 말합니다. 정착과 군주제의 부상 사이에 이스라엘은 분권화되었고 각각 자신의 성소를 가진 다양한 지역과 종교 단체로 분리되었습니다. 주변에는 여러 성소가 흩어져 있었고, 이러한 성소에서는 관련 전통이 있지만 서로 다른 방식으로 발전했습니다. 즉, 정복과 정착 이후 여러 성역에서 발전하는 많은 고립되고 독립적인 전통을 얻게 됩니다. 백성들이 왕 아래 재결합하게 되면 종교적 연합을 이루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렇다면 기원전 1400년에서 1200년 사이에 정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출애굽 날짜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3~4세기에 걸친 발전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입니다.

왕권이 높아지면서 통일이 필요해졌습니다. 그러므로 그 목적을 위해 사무엘의 인도 아래 성소의 법전을 성문화하는 법안의 요약본이 준비되었으며, 그 법전이 바로 신명기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시대에는 모든 다양한 자료가 어떤 형태로든 합쳐졌고, 그것이 왕권 아래 중앙 집중화를 위한 표준 법률서가 될 것입니다. 로버트슨은 신명기 12장이 예배의 중앙 집중화를 요구하므로 왕 아래의 연합이 중앙 집중화를 가능하고 바람직하게 만든다는 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명기의 기원을 사무엘 시대의 이런 과정으로 상정한다.

또 다른 사람은 1946년에 *초기 이스라엘의 성소의 영향*(*The Influence of Sanctuaries in Early Israel*)을 쓴 R. Brinker였습니다. 그는

로버트슨과 매우 유사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Brinker와 Robertson의 차이점은 중앙화가 초점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중앙 집중화보다는 정화가 관련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그것을 왕정 이전 어느 시점, 아마도 사무엘 시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4. 모자이크 날짜 네 번째 요점은 “모자이크 날짜” 입니다. 나는 단지 당신에게 초기 데이트를 유지하는 몇몇 남자의 이름을 알려줄 것입니다. 역사를 통틀어 모자이크 연대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없었던 시대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는 우리를 “신명기의 모자이크 날짜를 옹호하는 사람들”이라는 지점까지 이르게 하는데 , 이는 모자이크 날짜라는 제목 아래 4번째입니다. 이제 여기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은-이 시점에서 어떤 세부 사항이나 논증을 다루기보다-벨하우젠 시대 이후로 그의 모든 주장을 고려하면서도 여전히 주장을 고수하고 견지해 온 특정 사람들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 책을 대표하는 대로 신명기의 모세 기원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여러 사람: James Orr, 1906, *The Problem of the Old Testament*. 그것은 190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HM Weiner, 1920, *The Main Problem of Deuteronomy* 가 그의 연구 제목입니다. OT Allis, 의심할 바 없이 그는 여러분에게 친숙합니다. *The Five Books of Moses* , 1943. EJ Young,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 1949, 2판 1960. 네덜란드에서 J. Ridderbos 라는 사람이

다음과 같은 두 권의 주석을 썼습니다. 1950~51년의 신명기는 네덜란드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GC Aalders 의 서문도 역시 네덜란드어로 1953년에 나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최근에 RK Harrison의 구약 입문(*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이 있습니다. 이 책은 1969년에 출판된 여러분에게 친숙한 큰 책입니다. 나는 그의 서문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책은 신명기에 대한 좋은 개관입니다. 그는 모자이크 저자임을 지지합니다. 서문에서는 낱자와 저자 등 중요한 문제를 다룹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해하게 된 것은 이 모든 논쟁이 그것을 더 늦거나 더 일찍 추진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고 벨하우젠 시대 이후로 계속되어 온 모자이크가 아닌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매우 책임감 있는 대표자들이 있는 전통이 있다는 것 입니다. 이 책의 모세 기원을 주장한 사람과 그 견해를 옹호한 사람을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계속해서 유지되어 온 전통적인 입장을 강력히 지지하는 몇 가지 새로운 접근 방식이 개발되었습니다.

II. 이 책의 문학적 구조와 범위, 그리고 역사적 함의

A. 이 책의 구조적 완전성은 종종 의문을 제기해 왔습니다.

이는 개요에서 로마 숫자 II로 이어집니다. 로마 숫자 I는 "저작자와

날짜: 중요한 출처에 대한 조사”였습니다. 로마 숫자 II는 “이 책의 문학적 구조와 범위 및 역사적 의미”입니다. A. 이 책의 구조적 완전성은 종종 의문을 제기해 왔습니다.” 자, 우리는 이미 비판적인 관점에 대한 논의에서 그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벨하우젠으로 돌아가서 그는 원래의 핵심이 하나라는 것을 알았지만, 물론 때는 늦었습니다. 핵심인 12-26장은 통일성이지만 26장 이후에 나오는 내용과 12장 이전에 나오는 내용은 부차적인 추가 사항이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벨하우젠 이후의 책의 구조적 완전성은 심각한 의문을 제기해 왔습니다.

GE 라이트와 M. 노스

구조적 완전성과 관련된 문제 중 하나는 나중에 다시 다루겠지만 이 시점에서는 언급하겠습니다. 이 책에는 두 개의 서문이 있다고 흔히 알려져 왔습니다. 1~4장은 하나의 서문이고 5~11장은 두 번째 서문입니다. G. 어니스트 라이트(Ernest Wright)는 *해석자의 성경 주석 시리즈*에서 “신명기”에 대한 주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아마 그것에 익숙할 것입니다. 이 책은 비평적인 성경 주석을 대표하는 훌륭한 동시대 주석입니다. 부정적인 비판이라는 의미에서 비판적이다. Wright는 이 두 가지 소개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쪽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서로 독립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책의 구조를 보면 두 개의 서문이 서로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나요?

그는 포로기 시대나 포로기 이후 시대에 대한 일부 신명기 역사가의 산물인 “신명기 역사서”라고 부르는 매우 복잡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마틴 노스(Martin Noth)의 관점을 실제로 채택했습니다. 신명기부터 열왕기하까지 이어지는 이 신명기 역사서를 쓴 사람은 누구입니까? 즉,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입니다. 거기에는 통일성이 있습니다. 신명기 역사서이다. 이제 주의하세요: 만약 당신이 이것에 대한 노스의 견해를 받아들인다면 그는 오경에서 신명기를 빼냅니다. 그러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라는 네 권의 책이 남게 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의 다음 단원은 신명기 역사로, 신명기는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오경의 일부로 간주되지 않고 구약성경을 나눌 수 있는 두 번째 부분의 선두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틀로 채택한 Wright와 Noth는 신명기 1-4장이 이 역사 작품 전체를 소개하고, 5-11장은 더 큰 역사 “책” 내에서 신명기를 소개한다고 말합니다. 두 개의 서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명기의 머리가 되는 자료 전체를 소개하고(신명기-열왕기하), 5-11장은 이 두 번째 자료의 첫 번째 책인 신명기 자체를 소개합니다. 자, 그것은 신명기의 구조적 완전성이 어떻게 공격받았는지에 대한 또 다른 예시일 뿐입니다. 책의 구성을 어떻게 설명하나요? 그래서 책의 무결성 구조에 대해 종종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B. 게르하르트 폰 라트

이 책의 문학적 구조에서 “B”는 “Gerhard von Rad”이며, 우리는 이전 섹션에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는 1938년부터 신명기의 구조적 패턴에 주의를 환기시켰습니다. 1938년에 게르하르트 폰 라트는 신명기의 구조적 패턴의 중요성에 주의를 환기시켰습니다. Von Rad는 이 책이 기본적으로 하나의 단위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 책이 하나의 책으로 받아들여져야 함을 나타내는 구조가 거기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나중에 그것에 대해 다시 이야기할 것이고 우리는 이미 그것의 일부를 논의했습니다. 1938년에 폰 라드 (von Rad)와 같은 사람이 책에서 구조적 완전성을 유지하는 패턴을 본 것은 흥미롭습니다. 이제 내가 그렇게 말한 이유는 나중에 밝혀질 것입니다.

C. Meredith Kline C “Meredith Kline은 신명기의 완전성을 존중하는 신명기에 대한 비판적 접근 방식을 올바르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책의 진술과 상충되는 구성 이론을 가설적으로 구성하지 않습니다. 그는 책의 완전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형식비판적 분석을 통해 책에 접근합니다. 이는 신명기의 성격과 구조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열어주었다. 나는 그것이 K line이 지적인 것처럼 해석과 날짜에 대한 암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여기서 픽업하겠습니다.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가 각본을 맡았습니다.

편집자: 페리 필립스 박사

페리 필립스 박사가 다시 해설함